

사회과 ‘법과 사회’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이해 연구

- 질적 접근을 통해 -

박성혁* 정석민**

<국문요약>

이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새롭게 신설된 심화 선택 과목인 ‘법과 사회’ 교과서의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심층 면담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첫째, ‘법과 사회’ 교과의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교과서의 내용 체계를 교사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셋째, 교과서를 교사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이다. 연구를 위해 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가 인식하는 목표와 국가 교육 과정의 법교육 목표가 달랐다. 교과서 내용 면에서, 교사마다 교과서 서술 방식, 분량, 내용 요소에 대한 평가가 달랐다. 교과서 활용 면에서 수능 시험의 영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모두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교과서 활용도가 높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과 사회’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면, 교사는 교과서를 평가하거나 활용할 때, 교사의 일상적 목표에 기초하여 ‘최적화된 수업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법과 사회’ 교과서, 7차 교육과정, 일상적 목표, 최적화된 수업 행동, 국가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심화선택과목, 교사의 인식, 질적 접근, 심층면담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 경북고등학교

I. 들어가면서

1. 연구 목적

교육 과정이 개정될 때, 우선 변화하는 것은 교과서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 과정을 평가할 때 많은 연구가 교과서 분석을 시도한다. 교과서가 교육 과정의 의도를 잘 반영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교육 과정이 잘 실현 되었나 판단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교육 과정의 반영이 성공적인지를 평가하지만, 교과서가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교사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¹⁾ 도대체 교실 수업에서 교과서는 교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다음 논의는 이 연구의 목적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교과서 개선을 위한 규범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물들이 현장에 보급되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교과서를 쓰거나 읽는 사람들의 교육적 체험에 대한 관심은 표명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교육 과정 연구가 개발에서 이해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전환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감안해볼 때, 교과서에 대한 연구도 개발을 위한 처방적 논의에서 교과서를 쓰거나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해명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거나 동반되지 않은 처방적 논의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이혁규, 2005, p. 248.)

이혁규가 지적하고 있듯 교사의 교과서 사용 체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여러 연구들이 공식적 교육 과정과 실제 제공되는 교육과정의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교과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밝힌 연구는 특히 더 찾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법과 사회’ 교과서를 사용한 교사들의 체험을 조사함으로써 교사가 ‘법과 사회’ 교과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용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 주제로 일반 사회 영역의 선택 과목 중 ‘법과 사회’ 교과서를 선택한 이유는 ‘법과 사회’가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교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과 사회’와 같이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교과인 경우, 그 교과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기준이 공유될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그대로 반

1) 박인옥(2005)의 “사회과 교사의 교과서 활용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제7차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구현 방식을 중심으로-”는 이에 대한 드문 연구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사례 교사를 중심으로 참여 관찰,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교사의 일상적 삶 속에서 형성된 인식 조정 과정이 교실 수업에 구현되는 과정을 질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영되기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처음 사용되는 '법과 사회' 교과서가 교사들에 의해 어떻게 체험되고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법과 사회' 교과서가 현장에서 교육 과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법과 사회' 교과서를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교사의 체험담을 통해 이해하려는 것이다. '법과 사회'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이 장의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사회' 교과과 목표, 내용체계를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과서를 실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교과 교육과정의 구성은 교과 목표, 내용 체계, 교수 학습 방법, 평가의 범주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이 중에서 평가는 교과서의 사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제외하고, 교과 목표, 내용 체계, 교수 학습 방법 범주를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둘째, '법과 사회' 교과서를 교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스스로 평가한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교사가 교과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교과서의 구체적 사용 방식이 달라진다.

II.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1. '법과 사회' 교과과 교과서

1) '법과 사회' 교과

'법과 사회' 교과과는 법치 사회 실현,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7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 과목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사회' 과목의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6 학년), '사회 생활과 법 규범'(8 학년)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과정에서 선택 과목으로서 심화시킨 것이다. '법과 사회' 교과과가 심화선택 과목으로 채택된 배경에는, 지금까지의 법교육이 기존 체제 및 제도의 무비판적 수용만 강조하여 법적 분쟁 등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지식이나 기능을 갖추게 하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법과 사회' 과목은 법치 사회의 실현 뿐 아니라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였다. (교육부, 2000a) '법과 사회' 교과과의 핵심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법 현상

이해 증진, 법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책임 의식 및 능동적 참여 태도 함양이다. (<표 1> 참조)

<표 1> ‘법과 사회’ 교과목의 목표 체계

총괄 목표	하위 목표
법 현상 이해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현상 이해 및 설명 ◦ 자료 분석 및 추론: 법 현상과 쟁점 및 발전 방향 전망
법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분석 및 추론 ◦ 쟁점 규명 및 가치-태도 명료화
책임 의식 및 능동적 참여 태도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체계·법 질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태도 증진 ◦ 능동적 참여 능력 및 태도 증진

‘법과 사회’ 교과목은 앞에서 제시한 법 교육의 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는데, 크게 법의 개념과 이념, 법의 과정, 법의 체계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밑에 구체적인 개념들이 하위 내용 요소로 제시되어 있다. (<표2> 참조)

교과서는 이 내용 체계를 기준으로 서술된다. ‘교육과정해설(교육부, 2000, pp. 217)’은 각 내용 서술시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구체적 학습 내용보다는 학생의 응용 능력을 고려하여 법 과정과 관련한 법 개념을 구성할 것. 둘째, 비전문인 대상의 법교육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쉽게 구성할 것. 셋째,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을 위해 생활과 관련된 논쟁적 문제를 다룰 것 등이다.

<표 2> 법과사회 내용 체계

영역	주제	내용 요소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의의와 구조 ◦ 법의 일반 원칙과 법 적용 ◦ 권리와 의무 	법의 개념과 기능/법의 이념/법의 분류/권리 남용 금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법 적용의 원칙/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법치 사회와 민주 시민/법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개인 생활과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 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 가족 관계와 법 ◦ 민법의 기본 원리와 법 문제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미성년자의 권리/가족 간의 법률 관계/민법의 기본 원리/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부동산 거래와 등기

<p>사회 생활과 법</p>	<p>○학교 생활과 법 ○여성과 법 ○소비자의 권리 보호 ○근로자의 권리와 법 ○환경과 법</p>	<p>교사와 학생의 권리/여성의 권리/여성과 법적 쟁점/소비자의 권리와 피해 구제/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노동법/사회 보장 제도/환경 문제와 법적 해결</p>
<p>국가 생활과 법</p>	<p>○기본권 보장 ○행정법과 행정 구제 제도 ○범죄와 형벌 ○재판의 종류와 원칙 ○국제법과 국제 분쟁</p>	<p>인간의 존엄과 가치/평등권/자유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행정 조직과 법치 행정/행정 구제 제도/형법과 범죄 예방/재판 절차와 종류/국제법과 국제 분쟁의 해결</p>
<p>법생활의 발전과 과제</p>	<p>○법 문화와 법의식 ○법을 구조 제도와 미래 사회의 법</p>	<p>법의식과 민주 시민의 자질/한국의 전통적 법 문화/선진 외국의 법 문화/법을 구조 제도/법의 변천과 미래 사회/미래 사회의 법적 쟁점</p>

또한 교육과정에서는 ‘법과 사회’ 교과서의 바람직한 교수 학습을 위해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하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교육관에 기초해, 개개인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삶에 의미를 주는 실천적 지식의 습득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관을 강조하는 이유로 사회과(Social Studies)의 성격이 ‘종합적이며 통합적인 교과’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강조이다. 교사의 역할이 ‘교수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고차적인 사고력과 비판적 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하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주는 살아있는 지식의 체험을 안내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 ‘법과 사회’ 교과서

제 7차 교육 과정에 의하면 ‘법과 사회’ 교과서는 심화 선택 과목인 ‘법과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2종 도서에 해당된다. 2종 도서²⁾란 교육부의 사전 심사인 검정을 필하고 발행 허가를 받은 교과서를 말한다. (조영달편, 2001, pp. 181-182)

심화선택 과목 중 ‘법과 사회’ 교과는 다른 일반사회 영역 과목들(경제, 정치, 사회문화)과 달리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신설되어, 고등학교에서 본격 실시 된지 두 해째에 접어들고 있다. 게다가 ‘법과 사회’의 교과서는 다른 검인정 교과서와 달리 단 하나의 출판사(교학사)에서만 출판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2004년과 2005년 동안 전국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를 가르치는 학교는 2종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한 종류의 ‘법과

2) ‘검정 교과서’라 부르기도 한다.

사회'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3) '법과 사회' 교과서에 대한 평가

'법과 사회' 교과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박성혁과 김순희(2004)의 것이 있다. 이 연구는 '법과 사회'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및 내용을 제대로 구현하여 구성하였는지를 교과서의 구성 체제와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현 '법과 사회' 교과서는 구성 체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교과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다양한 사례 제시를 위한 몇 가지 구성 요소(법적 사고력 키우기, 생활법률 Q&A, 도움말)의 도입을 볼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학습 내용에 있어서도 주로 사실적 지식들이 피상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탐구 활동' 제재도 적절성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결국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7차 '법과 사회' 교과서는 구성 체제나 내용 면에서 7차 사회과 교육 과정상의 개정 방향이나 교과목의 성격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학교 교육, 교과서 그리고 교사

1) 학교 교육과 교과서의 기능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교재로서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 과정의 꽃이며, 구체적인 결과물이다. 양미경(1998, p.86)이와 관련하여 교과서의 지위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

첫째, 교과서는 그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학교'의 성격이나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 사회 제도의 하나인 '학교'가 '교육'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능을 다중적으로 수행하듯이, 교과서 역시 학교의 기능과 성격을 그대로 갖는다.

둘째, 교과서는 국가에 의한 저작이나 심의 과정을 거친 후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한 교재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접하는 수많은 자료들과는 차별적인 성격을 지닌다. 교과서는 학교 수업의 내용 뿐 아니라, 교내 평가나 입시 내용을 결정하는 척도 역할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내용과 질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교과서가 학교에서 차지하는 '공식적'인 지위로 인해 교과서는 교수 학습 내용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교과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학교 교육의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과서가 교사의 수업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 또한 교사들이 사회과의 내용을 가르치는 1차적인 자료로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크게 의존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EPIE, 1979; Hertzberg, 1981; Weiss, 1978; Woodward, 1993; Woodward & Elliot, 1990)

2) 교과서관 변화와 교사의 역할

교사는 교과서와 학생 사이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매개자이다. 즉, 교사는 교과서를 사용하여 학습자를 안내한다. 이 때 교사가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여 제시하느냐에 따라 교과서가 교수 학습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교과서가 교수 학습 과정에서 절대적인 표준이 되는 학교 문화 속에서는 교사도 학습자도 교과서의 종속 변수일 수밖에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 36) 그러나, 최근 교과서관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김재복(2000)은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전통적 교과서관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그는 진리에 대한 관점이 주관적 진리관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도 교사 개인의 경험과 목표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석진·이승구·조난심·박경미(1997)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 연구'에서 외국의 교과서 검정 제도를 참조하면서 교과용 도서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설정한 뒤, 현행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토대로 새로운 교과서 개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교과서 개선 방향을 열린 교과서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등에 의거해 실제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사가 교과서에 있는 것을 모두 가르치지 말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해서 지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2000b)의 '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교사 역할에 대한 다음 진술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학교 교육 과정의 최종 결정자는 바로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교사야말로 의도적인 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 교육의 주체이고 실천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가 기준을 잘 만들고 지역 지침을 세밀하게 마련해주어도, 교육 실천자가 명확한 교육 의도를 가지지 않고, 교육 목표와 내용을 뚜렷하게 다루지 않거나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지 아니 한다면, 의도적인 학교 교육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실제로 어떤 교과서관을 가지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Kon(1995)의 연구 결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Kon은 7명의 초등학교 5학년 교사

를 대상으로 교사가 사회과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심층 면접과 수업 관찰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 이는 교사의 교육적 경험, 사회과에 대한 시각, 학생의 특성, 학교와 교실 상황의 고려, 시간과 공간 고려 등의 사전 의제(prior agenda)에 따라 교사가 교과서의 역할을 서로 다르게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교사가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Thornton(1991)은 교사를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의 문지기(curricular-instructional)'로 규정하였다. 교사는 수업 계획 과정에서 일정한 학생들을 위해 특정 지식을 구체적인 교육과정으로 변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사들이 사회과의 교수 계획을 결정할 때, 교육 과정과 교수를 별개로 놓고 교육 과정은 외부 권위자가 결정할 몫이고 교수학습 만을 교사의 몫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이러한 특성을 Brown(1988)의 말을 인용해, 교사란 '교육 과정의 계획자'라기 보다는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교사들이 교과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가에 관한 국내 연구 중에는 박인옥(2005)의 연구가 있다. 그녀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는 교과서의 특징 중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변화만 수업에서 구현하였고, 불만을 가진 내용은 변형·첨삭·재구성하여 일부 특징만 구현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교사의 수업 행위를 '인식적적 조정 과정'에 근거한 '일상적 최적화 수업 행동'이라고 이해하고, 이에 대해 '일상 실천적 지식'이라고 명명하였다.

좀 더 범위를 넓혀 반드시 교과서의 사용이 아니더라도 교과서와 관련된 교육 주체들의 인식을 연구한 것으로는 박인옥 외(2000)가 제7차 사회과 교과서 편찬과정에 참여한 편찬 참여자의 교육 과정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있고, 박윤경(2001)의 제7차 사회과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들의 교과서 선호 이해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박윤경은 5명의 중학교 사회과 교사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교사들의 교과서 선호 구성 요소를 분석하였는데,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은 교과서 외형체제, 본문 내용 기술 방식, 탐구 활동의 활용 가능성, 분량의 적정성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교과서 선호를 결정하며, 교과서 선호는 기존 교과서 활용 경험에서 형성되고, 교사는 선호하는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하는데 소극적이었다.

교사의 교실 수업 활동 결정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될 이론을 제공하는 연구로는 조영달(2001)이 있다. 그는 '한국 중등학교 교실 수업의 이해(2001)'란 저서에서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수업 행동의 최적화'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의 이 개념은 앞에서 제시한 박인옥(2005)의 연구 결과 분석의 이론 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조영달은 교사의 최적화 수업 행동이 교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봤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법과 사회'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은 교사이며,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는 '법과 사회' 교과서를 사용한 생생한 체험담이다. 이를 위해 심층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 교사들 스스로의 언어를 통해 교과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 교과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파악하며, 또한 교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과서상과 관련지어 실제의 교과서가 갖는 한계를 교사들이 각자 어떻게 극복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면담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자인 교사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법과 사회 교과서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내용은 녹음과 동시에 핵심 사항을 기록지에 적고, 녹음 내용은 모두 전사하여 분석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추가 질의를 했으며, 면담 약속을 잡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활용하였다.

연구 기간과 자료 수집 활동이 이루어진 과정은 <표3>와 같으며, 질문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빼놓지 않고 질문했던 내용은 <표4>과 같다.

<표 3> 연구 진행 과정

연구기간	자료 수집 활동
2005. 3 - 2005. 4. 31	선행 연구 및 연구 계획 수립
2005. 5월 첫째주.	대상자 실태 파악
2005. 5월 둘째주	1차 면담 - 녹음 및 기록
2005. 5월 셋째주	2차 면담 - 녹음 및 기록
2005. 5월 넷째주	수집한 자료 전사 및 비교 분석
2005. 6월 첫째주	결과 분석 및 논의

<표 4>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질문 내용

질문 영역	세부항목
교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 사회’ 교과는 어떻게 담당하게 되었습니까 · ‘법과 사회’ 교과 내용과 관련해 전공 혹은 연수의 경험이 있습니까?
교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 사회’ 교과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법과 사회’ 교과의 교육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 사회’ 교과서의 서술 방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법과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사례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법과 사회’ 교과서의 전체 분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법과 사회’ 교과서에 덧붙여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법과 사회’ 교과서에 빼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과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 사회’ 교과서는 모두 가르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법과 사회’ 교과서 내용 중에서 선택하여 가르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점 극복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 사회’ 교과서를 가르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교수 학습 시 ‘법과 사회’ 교과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연구 대상

연구의 핵심 자료는 교사³⁾의 생생한 ‘경험담’ 과 경험에 기초한 교사의 교과서에 대한 ‘해석이 담긴 진술’이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할 때, 이들 자료를 올바르게 수집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고, 개방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Spradley(1979)는 이처럼 어떤 문화적 영역 속에서 생활하며 느낀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을 ‘정보 제공자’라고 명명하였는데, 정보제공자들의 일반적 경험에 의지하여 반복

3) 여기서 교사란 학교 사회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공식적 구성원으로서, 학생과 더불어 수업을 이끌어 가는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조영달(2001, pp. 24-26.)은 교사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¹⁾ 한국 중등학교 교실 수업의 상황과 연결지어 이해할 때 교사란 “교육 제도 속에서 학생의 학습 경험을 인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공식 자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교사는 학교 제도 속에서 교육 활동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이며, 사범대학이나 일반 대학에서 교육 활동과 관련된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

된 설명과 일련의 면접, 그리고 특별한 질문을 이용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멋진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3명의 교사가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해주었다. <표 5>는 연구를 위해 기꺼이 면담에 응해줬던 정보 제공자에 관해 개략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정보 제공자의 특성

정보제공자(교사)	학력	재직 학교	교직경력
갑 (남)	국립대 사범대졸	공립고(남녀공학)	중학교7년 고등학교3년
을 (남)	국립대 사범대졸	공립고(남녀공학)	고등학교 12년
병 (남)	사립대 사범대졸	사립고(남고)	고등학교 3년

정보 제공자인 교사들의 특성을 좀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갑교사는 교육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으며, 사회과 교사 모임 등에서 활동하는 등 사회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경험도 풍부하다. 법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법학 개론을 들은 것이 전부이며, 별도의 교육이나 연수 등을 받은 적은 없다. 을교사는 법학을 부전공하였으며, 국립대 사회대를 졸업한 후 사범대에 편입하여 졸업 후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병교사는 가장 교사 경험이 적으며, 법교육에 대해서는 갑교사와 마찬가지로 법학 개론을 들은 경험이 전부이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7차 교육 과정에 의거해 만들어진 심화 선택 과목인 ‘법과 사회’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인 ‘교과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직접 교과를 가르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파악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3명의 교사들을 심층 면담하였고, 면담 내용을 구분 정리한 기준은 교과 교육 과정의 기준인 교과 목표, 내용 체계, 교수 학습 방법에 토대를 두었다. 모든 교과 는 이 세 범주에 기초하여 각 범주별로 그 기준이 제시되므로, 이 범주별로 파악하는 것은 교사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교사의 교과서 인식을 교육 과정과 비교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과 목표’와 ‘내용 체계’ 범주는 교육 과정 구성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교수 학습 방법은 ‘교과서 활용 및 문제점 극복 방식’으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하

였다. 교과서의 교수 학습 방법이란 결국 그 교과를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것으로서, 교과서의 활용 방식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교수 학습 방법’ 대신 ‘교과서의 활용 방식과 문제점 극복 방식’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연구 주제가 교사의 교과서 활용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이 용어의 사용이 더 적절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1. 교과 목표에 대한 교사의 인식

7차 교육과정 ‘법과 사회’ 교과가 지향하는 목표는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및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육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교과 목표가 현장 교사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다음은 갑, 을, 병 교사의 교과 목표에 대한 인식이다.

갑교사 : 법과 사회가 애들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들 머리 속에 남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래도 한번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죠.

을교사 : 법교육이 생긴 것은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법공부를 했지만, 법은 마인드 자체가 ‘브로텐 샤프트’거든요. 즉 ‘뺨을 위한 학문’이죠. 그래서 효용성도 크고, 논리적 생각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론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다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법교육이 지금 생긴 것은) 늦은 감이 있죠

병교사 : 법교육 목표는 싸가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몰라서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배워야 하구요. 그런 점에서는 법 교육이 필요하죠.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법교육의 실용성, 즉 법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해결력의 함양을 법교육의 목표로 여겼다. 그러나, 을교사의 경우 논리적 생각, 병교사는 싸가지 있는 사람 등도 목표로 제시하는 등 법교육의 목표의 구체적 내용에서 차이점도 나타났다.

교육 과정상의 법교육의 목표 중에는 법적 사고력, 법적 문제 해결력 외에 ‘적극적 참여 태도의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언급한 교사는 없었는데 이는 교육 과정상의 법교육 목표와 교사의 법교육 목표 인식이 많이 다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Andres(1981)의 연구결과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인디애나주의 사회과 교사 193명을 표집하여 45개의 척도 항목을 요인 분석하였는데, 사회과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는 것은 시민성이었다. 그러나 시민성에 대한 구체적 해석은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지만, 이질적 부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듯하다. “이질적 교사들이 동일한 교육 과정을 실천하지만, 사실상 이질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2. 내용 체계에 대한 인식

교육과정에서는 법 교육 내용 체계를 교과서 내용으로 서술할 때, 학생의 능력을 구성하여, 가능하면 쉽게, 생활과 관련된 논쟁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통과했다고 여겨지는 ‘법과 사회’ 교과서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교과서의 내용체계에 대한 인식은 크게 서술 방식, 사례 제시, 내용 요소(양과 내용)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1) 교과서 서술 방식

다음은 교과서의 서술 방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내용이다. 다음 내용을 보면 두 교사의 인식이 매우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갑교사 : 교과서가 너무 재미없죠. 눈높이가 애들 시각이 아닌 부분이 많고, 서술 같은 것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 서적에서 나오는 것을 여과 없이 서술한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조금 재밌는 내용으로 구성한다든지, 애들 용어로 좀 바꾼다든지, 제목도 흥미를 주는 제목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의 금지 등은 개념 자체가 제목으로 나와 버려 제목만 보서는 애들이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죠.

을교사 : 교과서의 분량이 객관적으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좀 늘려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술형 제목을 싫어해요. 법률 용어 설명할 때는 법학의 특성상 그 앞의 개념을 알아야 하고, 그걸 알려면 또 앞의 개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끌어오는 연관된 설명이 굉장히 필요해요. 현 교과서는 이런 순서에 가장 근접하게 비교적 잘 만든 거죠. 법이 딱딱한 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제도 수요의 법칙 딱딱하게 나오잖아요. 저는 어려운 개념보다 오히려 생활 관계 쪽이 어려웠어요. 근로자 관계, 청소년

관계, 여성 관계, 소비자 관계 이런 거. 제가 부전공을 한 이후 발전된 부분이라 그 부분이 어려웠어요.

교사의 교과서 서술 방식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부정과 긍정으로 구분되었다. 갑교사는 제목이 너무 개념 중심적이며, 학생들의 재미와 흥미를 끌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음을 비판하였다. 반면 을교사는 교과서의 단원 배치나 제목 서술 방식 등이 법학의 특성(개념의 연관성, 딱딱함 등)에 맞게 잘 배치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갑교사와 을교사의 개인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는 듯 보인다. 갑교사의 경우는 중학교 교사였던 경험, 사회과 교사 모임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중시하는 관점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법과 사회' 교과서의 서술 방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린 듯하다. 을교사는 법학을 부전공해서 법학 지식도 풍부하고, 법학 중심의 법교육을 선호했다. 그래서인지 법학 개론서와 비슷한 체계를 갖춘 교과서를 선호하였다.

2) 교과서의 사례

다음은 교과서에 탐구활동의 형태로 제시된 사례에 대한 인식들이다.

갑교사 : 등기부등본 같은 탐구활동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학생들이 경험해 보지 않거나,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 사례를 구성할 때 법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학교 문제의 경우, 두발과 관련된 법적 측면 등에 관심을 갖죠 그런데 (교과서에서) 교사와 관련된 내용 중에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등은 갑갑하죠. 이런 내용에 애들이 관심이 있겠어요?

을교사 : 책에 사례 같은 것이 꽤 있어요. 판례 같은게. 예를 들어 Q & A 판례 같은 거 두 페이지 단원 끝에 두 페이지 나왔는데 수업 하는데 세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한 사례를 조각조각 제시해놨는데, 그게 사례 연구의 단점이기도 해요. 사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학자가 연구하는 판례 같은 경우는 사실 관계가 앞에 있고, 거기서 법률적 판단을 내리니까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교과서 정도에 수록되는 것은 진짜 신문 기사 수준이거든요. 딱 잘라가지고 나오니까 맥락도 없고. 사실 관계 자체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설명이 더 늘어나고 복잡해질 수 밖에 없죠.

병교사 : 교과서에 시사적 사례가 풍부했으면 좋겠어요. 갑남을녀 식의 사례는 재미도 없고, 현실과 동떨어지죠.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 사례를 보여줬으면 해요. 물론 법에 딱 맞는 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찾아보면 좋은 사례가 있을 거예요. 시사적 사례를 제시하면 법적으로 설명이 어렵겠지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현실과 관련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닐거예요.

교과서에 수록된, 혹은 수록되어야 할 사례에 대한 인식이 교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비교적 갑교사와 병교사는 비슷하고, 그에 비해 을교사는 두 교사와 다른 입장에 있다. 갑·병 교사는 모두 교과서에 생생한 현실의 사례를 수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중 갑교사는 생활에서 체험하는 사례를 강조하고 있고, 병교사는 시사적 사례를 강조하였다. 반면 을교사의 경우는 현실의 사례를 법적으로 가르칠 경우 구체적 상황의 제시 없이 사례만으로 법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함으로써, 현실의 사례를 그냥 제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사례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에는 법학 개념과 생활 사례 중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두느냐에 대한 서로 다른 법 교육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법학 개념을 중시하는 을교사의 관점에서 사례는 개념 이해를 위한 부차적 도구이다. 따라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기만 한다면 인위적인 사례여도 좋고, 가공된 사례여도 좋다. 반면 갑교사나 병교사와 같이 생활 속에서의 법 경험을 강조한다면, 현실적이고, 시사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 사례에서 핵심적인 법 개념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3) 교과서의 내용 요소에 대한 인식

다음은 교과서의 전체적인 내용 분량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다.

갑교사 : 개념이 너무 많아요. 한쪽만 공부한다해도 보통 10개 넘는 개념을 한 시간에 소화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죠. 법이 실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라, 실제로 활동을 하면 애들이 흥미를 느끼는데, 교과서의 경우 개념 따로 활동 따로 노니까 힘들어요. 교과서의 탐구활동의 경우도 애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 , 거의 법학 개념의 축소판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기의 권리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두고 교과서를 써야 좋지 않을까 해요.

을교사 : 현 교과서에서 빼야 될 것은 없어요. 넣으면 더 넣었지. 왜냐하면 법학 자체가

분야별로 민법, 형법, 헌법, 행정법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나름 대로 개념들이 있고,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보여주는 너무 박차죠. -- 균형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헌법재판소 부분은 왕창 빠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근로자, 학생, 교사에 관한 것은 대단원 하나에 집어넣어 놨는데, 가정에 관계된 부분이 좀 부실하다는 느낌이에요.

병교사 : 학교에서 가르치는 법은 법학 개론 수준이어야 하느냐 생활법 수준이어야 하느냐 영원한 딜레마죠. 저는 중간이 가능하다고 봐요. 법학의 맛을 보여주면서, 생활에 중요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사마다 교과서 분량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보여준다. 갑교사는 현 교과서가 법학 개론의 축소판처럼 너무 많은 개념을 다루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을교사는 오히려 내용이 부족해서 더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부분이 빠진 것을 아쉬워했다. 이는 앞서서도 논의하고 있듯이 각 교사의 배경과 관련이 있다. 특히 법학을 부전공한 을교사의 경우는 법학 자체를 중시하여, 법학 개론을 기준으로, 현 교과서를 평가하고 있다. 반면, 갑교사와 병교사는 학교, 학생의 흥미, 생활과의 연관성이라는 요소를 강조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내용 요소 중에서 특히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갑교사, 병교사 : 법하면 인권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거의 도외시되고 있어요

을교사 : 근로관계법 같은 것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꽤 많지만 계속 많이 변하고 하니까, 업데이트해서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졸업하고 바로 사회로 진출할 테니까요.

추가되어야 할 내용 요소에 대한 언급에서도 갑교사와 병교사는 유사한 답변을 한 반면, 을교사는 다른 관점에서 있다. 교사와 병교사는 인권 부분이 좀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을교사는 근로관계법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 법교과서의 활용 및 문제점 극복 방식

다음은 교과서 내용을 어느 정도 수업에 반영하는지를 물어본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갑교사 : 교과서의 기본 내용은 다 공부하죠. 탐구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기본 내용은 거의 다 가르치는 편이에요. 모의 고사에서 대부분이 문제로 다뤄지더라고요.

병교사 : 교과서는 거의 사용 하지 않아요. ○○출판사에서 나온 참고서를 사용하죠. 고3이라서 수능 준비를 해야하니까요. 출제 문제들에 나오는 사례가 새로운 것이 많아서 교과서만 배워서 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참고서를 교재로 쓰는 편이 훨씬 좋죠.

갑교사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병교사는 3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두 교사 모두 수능시험을 염두에 두고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가르치고 있었다. 특히 병교사의 경우는 고3 학생의 경우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려면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까지도 학생들에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과서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학습지를 주 교재로 채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한 진술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갑교사는 모의고사가 교과서 내용을 거의 다루므로 교과서의 내용을 다 공부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을교사는 모의고사 문제가 교과서 외의 범위까지 출제되므로,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 면에서 모든 교사들은 수능 시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교사들이 교과서 활용과 관련하여 어떤 교수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내용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 과정이 요구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갑교사 : 3학년이면 입시 위주로 가르쳤을 텐데, 2학년 수업이라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당 수업이 4시간이라 좀 여유가 있어서, 한 시간 정도는 토론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1시간 중에서 10-20분 할애를 해서 토론을 하거나, 혹은 '재밌는 법률 여행' 책들에서 나온 일반 상식과 관련된 법률 상식을 문제 풀이 형태로 풀고, 또 한번은 20분 잡아서 솔로몬의 선택이라든지 생활 법정을 인터넷을 통해 다시 봤어요.

을교사 : 3학년이라서 일단 진도를 빼는 것이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는 학습지 같은 거 나눠주지 않았어요. 교과서 기준으로 해서, 아무 것도 안 주려고 했지만, 애들이 괴로워하니깐, 잘된 참고서의 앞에 정리돼 있는 것을 복사해서 나눠줍니다.

갑교사는 강의식을 기본으로, 토론, 동영상 등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을교사는 강의식 중심의 수업은 한다. 갑교사는 학생들이 2학년이고, 수업도 1주일 4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을교사는 3학년이라서 진도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식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사들 모두 교과서의 내용 및 교수 학습 방법을 선택할 때, 수능능력시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갑교사가 “2학년 수업이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던 거 같아요”라는 말은 다시 말해 “수능능력시험을 당장 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어요”란 말과 같다. 또한 을교사가 “3학년 이라서”라고 말한 것은 다시 말해 “수능능력시험이 당장 눈앞에 있으므로”와 같은 의미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교사의 교과서의 활용 및 교수 학습 방법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수능능력시험이라는 제도이다. 다양한 교수 학습 모형을 시도하는 갑교사 조차도, 1시간 중에 10분-20분을 할애하는 것은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험 대비를 위해 교과서를 모두 가르쳐야 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고, 다른 목표는 부차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다음은 교사들이 교과서를 가르치면서 겪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한 방식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갑교사 : 가르치다보면 법이 자주 바뀌니까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 들어가서 자주 찾아봐요. --교과서가 개념 위주라서 어려운데, 교재도 별로 없어요. 저는 케이스 중심의 ○○○씨가 쓴 책을 봐요. 그리고 차라리 법전을 뒤져서 관련된 법조문과 판례를 얘기해줘요. --(개념들을 가리치다 보면) 저도 모르는 내용이 사실 많아요. 법전 뒤져보고. 특히 행정법 쪽으로 가면 대학교때 행정법에 관한 내용 한 권 정도 읽어본 적 밖에 없는데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이죠. --지도서도 도움이 안돼요. 개념을 선생님의 용어로 설명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수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수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관한 조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나 판례를 찾아서 프린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죠.

을교사 : 교과서 외에 가끔 예전에 내가 보던 민법책이나 헌법 정도 봐요. 인터넷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것 찾아보기도 하고.

병교사 : 시중 법학 개론책을 참고해요. 한자 없는 걸로요. 빨리 읽는게 편하거든요.

세 교사 모두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극복 방안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법학 개념과 법 규정이 어려워,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올 때 별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세 교사 모두 이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검색함으로써 해결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법과 사회’ 교과서 사용에 대한 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해에 다다를 수 있다.

첫째, 공식적인 국가 교육 과정상의 법교육 목표와 학교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교사의 법교육 목표가 같지 않다. 교육 과정상 법교육 목표는 법현상 이해 증진, 법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 함양, 책임 의식 및 능동적 참여 태도 함양이지만, 교사들은 책임 의식 및 능동적 참여에 대해서는 법교육 목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둘째, 교과서 서술 방식, 내용 요소 및 분량의 적절성에 대해 교사마다 의견이 다르다. 교과서 서술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분량도 많다는 의견과 적다는 의견이 있으며, 내용 요소에 대해서도 인권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사도 있고, 근로관련법을 더 넣어야 한다는 교사도 있다.

셋째, 교과서 활용 및 극복 방법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대부분 교과서 내용을 모두 학습자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며, 그 이유는 법교육 목표 보다는 수능 시험의 대비와 관련이 있다.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현장의 교육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수능 시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2학년 담당 교사는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시도하지만, 3학년 담당 교사는 주로 강의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교육 과정이 제시하는 교수 학습 모형과 교사의 실제 교수 학습 모형 간에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과정은 구성주의 교수 학습, 열린 학습, 수행 평가, 홀리스틱 교육 이념 등과 같이 학습자의 적성, 소질을 반영하고, 개별 학습자의 자율성과 상호 작용을 존중하는 수업 방식을 제시하지만, 교사는 수능시험과 같은 현실적 이유로 인해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전통적 강의 방식을 선호한다.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을 시도하더라도, 학습자 주도의 교수학습모형까지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교사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 즉, 교과서에 대한 평가 내용에 따라 교사의 수업 최적화 행동이 달라진다. 갑교사는 교과서에 개념이 너무 많고, 구성이 재미없다고 평가

하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률 상식 문제풀기, TV에서 방송된 생활 법정 시청하기 등과 같이 학생들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한다. 을교사는 교과서 구성이 적절하지만, 수록된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법, 헌법 관련 개론서를 참고하여 수업을 한다. 병교사의 경우는 수능 시험이 교과서 범위 밖에서 출제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교과서 보다 내용이 풍부한 참고서를 교과서 대신 사용한다.

네 번째 결과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법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 ‘법과 사회’ 교과서에 대한 평가 및 교과서의 문제점 극복 방법에서 나타나는 개인별 다양성과 수능시험의 영향력은 조영달(2001)의 ‘최적화 수업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교사는 국가의 공식적 교육 과정의 목표가 아니라, 생활 세계 속에서 일상의 수업 목표를 인식하고, 그 수업 목표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방법으로 적용하는 행동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각 교사는 각자의 일상과 관련된 수업 목표가 있다. 갑교사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생활 중심의 법교육이라는 목표, 을교사는 논리적인 개념적 구성에 따른 법에 대한 이해라는 목표, 병교사는 수능시험에서의 만점 획득이라는 법교육 목표를 다른 목표보다 강조한다. 그래서 갑교사는 학생의 흥미를 돋우는 교수 학습 방법을, 을교사는 개념 설명에 치중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병교사는 모든 문제에 출제될 만한 개념과 사례를 설명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일상적 목표에서 비롯된 최적화 수업 행동은 교사들이 선호하는 사례의 성격에서도 나타난다. 갑교사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학생 생활 중심의 사례를 선호하는 반면, 을교사는 개념 설명에 도움을 주는 법률적 맥락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를 선호하고, 병교사는 문제에 소재로 출제될만한 자료를 얻기 위해 구체적이고 시사적인 사례를 선호한다.

위의 연구 결과는 ‘법과 사회’ 교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기한다. 우선 국가 교육 과정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법과 사회’ 교과는 신설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7차에 걸친 교육 과정 개정의 경험으로 인해 국가 교육 과정에서의 진술 수준은 매우 이상적인 반면, 학교 교육 과정의 실천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괴리는 국가 교육 과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학교 교육 과정과 교사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국가 교육 과정이 이상적이더라도 학교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교사의 인식과 실천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국가 교육 과정은 걸만 번지르르한 문서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사의 ‘일상적 교육 목표’에 따라 묵묵히 ‘최적화된 수업 행동’을 실천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들의 ‘일상적 교육 목표’나 그에 따른 ‘최적화된 수업 행동’은 교사들의 삶과 연결된 총체적인 선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 교육 과정이 그 의도를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한다면, 교사들의 '일상적 교육 목표'나 '최적화된 수업 행동'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먼저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학교 교육 과정부터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교사가 국가 교육 과정상의 목표를 자신의 '일상적 교육 목표'로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혹은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이상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최적화 수업 행동'에 반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7). 사회과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7].
- 교육부(2000a).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1. 총론.
- 교육부(2000b).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4. 사회.
- 김재복(2000). “교과서관의 변화”. 교과서연구, 35호.
- 김왕근(2000).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의 적정화에 관한 비교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1집. 41-82.
- 박성혁, 김순희(2004). “‘법과 사회’ 교과서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 제7차 사회과교육과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36권 1호, pp. 83-100.
- 박윤경(2001).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채택과정에 대한 연구 :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과 교사들의 교과서 선호 이해”. 『시민교육연구』, 제33호, pp. 109-139.
- 박윤경(2003). “교육과정 변화기 사회과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사례연구 : 변화지향적인 교사의 교실 수업 변화에 대한 이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인옥 외 (2001). 제7차 사회과 교과서 편찬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 편찬 참여자들의 교육과정 인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31호, pp. 143-183.
- 박인옥(2005). “사회과 교사의 교과서 활용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 제7차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구현 방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손병노(1996). “사회과 교사의 전문성 탐색 : 교수내용지식의 관점”. 『사회과교육학연구』, 제2호.
- 양미경(1998). “교과서 구성의 문제와 발전 과제”. 『교육과정연구』, 제16권 1호, pp 85-123.
- 양미경(2004). “교육내용 적정화의 방법 및 제약 요인의 탐색 : 교과서 내용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제22권 3호, 49-71.
- 이병희(2004). “고등학교 『시민 윤리』 교과서에 나타나는 문제점(1)”. 『한국정치학회보』, 제38권 3호, pp191-212.
- 이혁규(2005). 『교과 교육 현상의 질적 연구 :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서울:학지사.
- 이흥우(2000). 『증보 교육과정 탐구』. 서울 : 박영사.
- 조덕주(2003).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기초로서의 교사의 개인적 관심과 개인적 지식 탐구”. 『교육과정연구』, Vol. 21. No. 4, pp. 51-76.

- 조영달 편(2001). 『교육과정의 정치학 : 사회과 7차 교육과정의 형성과 이행』. 서울 : 교육과학사.
- 조영달(2001). 『한국 중등학교 교실 수업의 이해』. 서울:교육과학사.
- 조영달(2005). 『제도 공간의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교육과학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Berrie, P. J. (1976) Needs assessment, Ankeny, Iowa : Area II. Education agency.
- Chall, J. S, & Conard, S. S. (1991). Should textbooks challenge students? : The case of easier or harder books. New York and London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Cornett, J. W. (1990). Teacher thinking about curriculum and instruction : A case study of a secondary social studies teacher.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18. 248-273.
- Elliot, D. L. & Woodward, A. Textbooks and Schooling in the United States (89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art I). Chicago: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 Erickson, F. (1986) Qualitative methods in research on teaching. In M. C. Wittock(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3rd ed.) (pp. 119-161) New York : Macmillan.
- EPIE. (1977). Report on a national study of the nature and the quality of instructional materials most used by teachers and learners. (EPIE Report No. 76). New York : Educational Products Information Exchange Institute.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 Basic Books.
- Lincoln, Y., & C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Sage
- Thornton, S. J. (1991). Teacher as curricular-instructional gatekeeper in social studies. In J. P. Shaver(eds), *Handbook of Research on Social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 A project of the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pp.237-248), New York : Macmillan.
- Weiss, I. R. (1978). *National survey of science, mathematics and social studies education*. Washington, DC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Woodward, A. (1993). Selecting social studies textbooks. *Publishing Research Quarterly*, 8, 62-69.
- Osborn, J. H., Jones, B.F. & Srein, M. (1985). The case of improving textbooks. *Educational Leadership*, 42(7), 9-16.

<Abstract>

Understanding a Social Studies Teacher's Cognition
on 'Law and Society' Textbook through qualitative approach

Park, Sunghyeok* Jeong, Suk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 social studies teacher's cognition on 'Law and Society' textbook through in-depth interview . The concrete issu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w are teachers thinking about the goals of the subject matter 'law and society', the quantity of content and the content itself? Secondly, how does teachers use the textbook? Simultaneously, if the problem being in the textbook, how do teachers resolve the problem? For this study, an ethnographic interview was conducted via face to face with three teachers who teach the subject of 'law and society' in a high school.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re is not a great deal of difference among teachers's recognition toward the goals of law-related education. But there is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goals which teachers think, and the official goals of law-related education. Regarding the element content and the quantity of content, the evaluation differs notably. while one teacher thinks to be good, another teacher thinks not. Regarding using textbook, all teachers teach every content of the textbook to highschool students because of Korean Scholastic Aptitude Test. To conclude, how to use textbook depends on the teacher's viewpoint. This study finds that the teacher evaluate and use the textbook on 'lesson target in everyday life' on law-related education.

Key Words : 'law and society' textbook, teacher's recognitio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e use of textbook, element content, qualitative approach, in-depth interview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Teacher, Kyeongbok highschool.